

‘호랑이 군단’ 주전경쟁 시작됐다

KIA 함평 스프링캠프를 가다

한승혁·이민우 눈부신 피칭
타자 박찬호 2차례 출루 성공
김종국 감독, 공격성 강조

‘호랑이 군단’의 본격적인 주전경쟁이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가 22일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자체 연습경기를 갖고 2022 스프링캠프 첫 실전을 소화했다.

최형우, 나성범, 김선빈을 제외한 야수진이 모두 가동됐고, 새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연습경기에 맞춰 야수진 인원도 충원됐다. 퓨처스리그 캠프에서 기회를 노린 이창진, 김규성, 김석환이 이날 1군 캠프에 합류해 경쟁에 가세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경쟁’이 흥미롭게 전개됐다.

선발 임기영과 이의리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4·5선발을 놓고 더욱 치열해진 경쟁. 이날 ‘선발후보’인 한승혁과 이민우가 각각 화이트팀과 블랙팀의 선발로 나서 어필 무대를 가졌다. 역시 자리 싸움 중인 유승철도 마운드에 올라 실전 피칭을 소화했다.

김종국 감독은 첫 실전에 앞서 ‘공격성’을 강조했다.

김 감독은 “연습경기보다는 라이브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다. 투수들이 투구수에 맞춰 던지는 등 라이브 개념의 연습경기”라면서 “투수들 같은 경우 템포, 공격적인 투구를 볼 것이고 야수들에게는 작전 상황, 공격적인 타격, 적극성 등을 주문했다. 자기 스윙대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공격적인 부분을 강조한 김종국 감독은 적극적인 주루와 수비 상황에 대한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 아웃카운트 상관없이 노아웃·윈아웃 상황으로 설정하고 실전을 풀어가는 듯 했다.

사령탑의 주문대로 선수들은 투·타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선발 경쟁도 눈부셨다.

한승혁이 31개의 공으로 9타자를 상대했다. 박찬호에게 내야 안타를 맞기는 했지만 8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했다. 무엇보다 고질적인 제구 난소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피칭을 하면서 볼넷 없이 첫 실전 피칭을 마무리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7km를 찍었고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 점점도 했다.

이민우도 좋은 피칭으로 경쟁력을 보여줬다.



KIA 타이거즈의 황대인(오른쪽)이 22일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연습경기에서 2루타를 친 뒤 환호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민우는 9타자를 상대하면서 27개의 공을 던졌다.

오정환에게 좌전안타는 맞았지만 남은 8명의 타자는 모두 범타로 돌려세웠다. 김호영, 김석환, 신범수를 상대로 3개의 탈삼진도 뽑아냈다.

무엇보다 이민우가 투구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예전과는 달랐던 모습이 보였다. 직구 최고 구속은 135km를 기록했고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도 구사했다.

타석에서는 박찬호가 두 차례 출루에 성공했다.

첫 타석에서 3루수 맞고 흐른 내야안타로 한승

혁을 상대로 출루에 성공했고, 세 번째 타석에서는 신인 김찬민을 상대로 우측 2루타를 만들었다. 황대인과 이창진도 2루타를 날리며 힘을 보여줬다.

한편 이날 첫 실전 피칭을 소화한 한승혁은 “큰 무리 없이 피칭을 소화했다.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다.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었지만 첫 경기치고 만족스러운 밸런스였다”며 “(선발 경쟁을 위해) 던지는 체력을 많이 길러놔야 할 것 같다. 체력적인 부분을 준비 잘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놀린



로니

새 외국인 투수 놀린·로니 라이브 피칭

놀린 “출진 했지만 만족스럽다”
로니 “최고 148km 몸 상태 좋다”
소크라테스는 3타수 무안타

KIA 타이거즈 새로운 외국인 투수 듀오가 2022시즌 준비를 위한 워밍업에 나섰다.

KIA의 선 놀린과 로니 윌리엄스가 22일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라이브 피칭을 소화했다. 두 사람의 첫 라이브 피칭으로 시즌 개막에 맞춰 예정보다 1주일가량 늦춰 진행됐다.

로니와 놀린은 모두 15구씩 두 차례 총 30개의 공을 던지면서 컨디션을 점검했다. 또 KBO 심판의 몸을 들으며 새 리그의 스트라이크존도 확인했다.

먼저 마운드에 올라 라이브 피칭을 시작한 놀린은 직구, 커브, 커브, 체인지업을 구사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6km를 기록했다.

마운드에서 직접 공을 던지면서 페이스를 끌어 올린 놀린은 다양한 폼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신의 폼에 대해 심판위원에게 질문을 하면서 새 리그에 관한 공부도 병행했다.

놀린은 “첫 라이브 피칭은 만족스럽게 진행됐다. 출진 했지만 모두가 다 같이 추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겨내려고 했다”며 “라이브 피칭 전 일부러 심판들에게 먼저 가서 말도 걸고 장난도 쳤는데, 여러가지 투구 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기도 해서 먼저 다가갔다. 심판들도 잘 설명해주어서 좋았다”고 언급했다.

빠른 볼이 강점인 로니는 이날 최고 148km를 찍었다. 투심, 커브, 체인지업도 던지면서 감을 점검했다.

로니는 “매우 흥분됐다. 몸 상태나 밸런스 등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 팔도 잘 풀려서 잘 던질 수 있었다”며 “속구는 내가 자신 있는 구종이고 일관성 있게 쏘므로 잘 넣을 수 있어서 걱정은 되지 않았다. 커브가 처음에는 존에 안 들어 가다가 코칭스태프와 이야기를 해서 그림을 조금 바꾸었더니 잘 들어 갔다”고 첫 라이브 피칭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운드의 외국인 듀오가 라이브 피칭에 나선 이날 새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도 실전을 소화하면서 KBO 데뷔 준비를 이어갔다.

소크라테스는 라이브에 이어 진행된 자체 연습 경기에서 블랙팀의 3번 타자 겸 중견수로 그라운드에 올랐다.

3타석에 들어선 소크라테스는 안타 없이 3루 땅볼, 좌익수 플라이, 2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빠른 발을 보여주는 등 순조롭게 시즌 준비를 이어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케인 합작 37호골 도전 EPL ‘역대 최고 듀오’ 등극하나

24일 새벽 번리전에 출전

4개월 만에 골을 합작해 낸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번리를 상대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역대 최고의 듀오’ 등극을 노린다.

토트넘은 24일 오전 4시 30분(한국시간)부터 영국 번리의 터프우어에서 번리와 2021-2022 EPL 13라운드 순연 경기에 나선다.

이 경기는 지난해 11월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번리 현재의 폭설로 경기장이 눈으로 뒤덮이면서 치를 수 없어 미뤄진 뒤 일정이 다시 정해졌다.

토트넘은 최근 23~25라운드에서 리그 3연패에 빠졌다가 20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26라운드에서 손흥민의 멀티 도움과 케인의 멀티 골, 데얀 클루 세브스키의 1골 1도움 활약을 앞세워 3-2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바꾼 가운데 번리와 만난다.

현재 8위(승점 39)로 다음 시즌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을 위해 아직은 순위 상승이 더 필요한데, 리그에서 손흥민은 최강의 공격 콤비 손흥민과 케인의 호흡으로 득점포 생산이 재개됐다는 게 토트넘 으로서 고무적이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14골을 합작해 ‘EPL 단일 시즌 최다 합작 골’ 기록을 새로 썼던 이들은 이번 시즌엔 함께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자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합작 골은 지난해 10월 뉴캐슬과의 8라운드에서 처음 나왔고, 이후 맨체스터 시티와의 26라운드에서 손흥민의 크로스에 이은 케인

의 문전 마무리로 2-1을 만들어 4개월 만에 추가했다.

이로써 2015-2016시즌부터 함께 한 손흥민과 케인이 EPL에서 합작한 골은 통산 36골로 늘어 과거 첼시의 프랭크 램퍼드-디디에 드로그바 콤비와 EPL 역대 최다 타이틀을 이뤘다. 이제 한 골만 더하면 램퍼드-드로그바를 뛰어넘는 최다 골 합작 신기록을 세운다.

번리는 손흥민에게 2020년 국제축구연맹(FIFA) 푸슈카시상을 안긴 골을 넣은, 특별한 기억이 있는 상대다.

손흥민은 2019-2020시즌이던 2019년 12월 번리와 리그 경기에서 약 70m를 혼자 드리블한 뒤 넣은 ‘월드골’로 푸슈카시상을 받았다.

이후에도 2020-2021시즌 두 차례 리그 맞대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1골 2도움)를 기록하는 등 번리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시즌엔 리그에선 첫 맞대결이며, 지난해 10월 리그컵 4라운드에서 만난 적이 있다. 리그컵 맞대결 때 손흥민은 후반에 교체 투입돼 20여 분을 뛰며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손흥민은 리그에서 한 골을 추가하면 이번 시즌 10골을 돌파, 6시즌 연속 EPL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금자탑도 세운다.

번리는 강등권인 EPL 19위(승점 17)에 머물러 있으나 지난 라운드에서 중위권 팀인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을 3-0으로 완파하고 리그 11경기 무승(7무 4패)에서 벗어난 뒤 토트넘과 맞선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맨체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EPL 통산 36골을 합작해 최다 골 타이틀 쓴 손흥민-케인 듀오. /연합뉴스

임성재 혼다클래식 출전 PGA 두 번째 우승 도전

임성재(24)가 고향 같은 ‘안성맞춤’ 코스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 사냥에 나선다.

임성재는 25일(한국시간)부터 플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스의 PGA 내셔널 챔피언 코스(파70)에서 나올 동안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혼다 클래식(총상금 800만 달러)에 출전한다.

PGA 내셔널 챔피언 코스는 PGA투어 대회 열리는 코스 중에 어렵기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PGA 내셔널 챔피언 코스는 PGA투어 대회가 열리는 코스 가운데 더블보기 이상 스코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 1인당 평균 2.37개다.

이곳에서 플레이한 선수 88%가 오버파 스코어를 한 번 이상 제출했다.

그린을 놓치면 파세이브가 정말 어려워져 ‘세컨드 샷 코스’라고도 불린다.

임성재는 많은 선수가 고개를 끄는 PGA 내셔널 챔피언 코스가 오히려 반갑다.

임성재는 2020년 이곳에서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타이를 방어에 나선 작년에는 공동 8위에 올랐다. 임성재가 이곳에서 유난히 강한 이유는 경기 스타일에 꼭 맞는 코스이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50라운드 동안 티샷 정확도와 아이언 샷 정확도가 모두 4위에 올랐다. PGA투어에서 임성재보다 보기를 적게 하는 선수는 4명뿐이다.

무더기 ‘버디 파티’보다는 타수를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PGA 내셔널 챔피언 코스에서는 임성재 스타일이 안성맞춤이다.

대회에 앞서 늘 우승 후보 15명을 꼽는 PGA투어닷컴은 이번 대회 우승 후보 1위로 임성재를 올려놓았다. /연합뉴스